



조승우

생존 vs 생명

사장 VS 의사, 병원 운영 놓고 대결

JTBC 새 월화극 '라이프' 조승우·이동욱·문소리 등 출연
홍중찬 PD, 대본·출연 배우들이 드라마 핵심이자 차이점
조승우 "이동욱과의 호흡 좋지만 키가 커 고개 아파요"



이동욱

배우 이동욱(36)과 조승우(38)가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새 월화극 '라이프'에서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슬한 화제를 모았던 '비밀의 숲'의 이수연 작가가 대본을 쓴 '라이프'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항원 항체반응처럼, 사립 상국대학병원을 둘러싼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의 신념이 병원 안에서 충돌하는 이야기다.

JTBC 새 월화극 '라이프'에서 이동욱은 응급실 의사 예진우로 등장한다. 이동욱은 제작발표회에서 "도깨비"에서는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저승사자였는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진우는 의료기관과 기업을 똑같이 운영하며 수익구조에 집중하는 구승효(조승우 분)를 막기 위해 목숨을 낸다.

이동욱은 "예진우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평범한 의사"라며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가님과 감독님, 함께 출연하는 훌륭한 배우들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게 됐다"며 "여전히 로맨스 연기는 좋아하지만, 전작 '도깨비'에서 절절한 사랑을 하다 보니 그 모습을 확 바꾸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조승우는 "제가 맡은 '라이프'

프'의 구승효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재수 없는 캐릭터다. '극혐'이다"며 "그러나 뒤로 가면서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승우가 맡은 구승효는 상국대학병원에 새롭게 부임한 총괄 사장이다. 숫자를 가장 중요시하는 냉철한 승부사로, 기업인으로서 영업이 추구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기준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의사 예진우 등 의사로서의 사명을 지키는 인물들과 대립한다.

조승우는 "구승효는 완전 '나쁜놈'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병원을 살리려는 인물이고 뻥속까지 비즈니스맨이다"며 "나이 마흔도 되지 않아 CEO가 된 사람으로, 자신을 키워준 선대 회장에 대한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룹에 충성하고 일에 있어서는 실력과 의지를 갖춘 인물이다. '혹자를 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전문가와 같은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승효와 대립하는 예진우를 맡은 이동욱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조승우는 "두 사람의 대립은 각자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요구하는 데서 온다. 구승효는 '파괴자' 장사하나. 너희들이 벌어서 그 돈으로 재투자하고 다시 의료가 발전한

다'는 논리"라며 "이동욱 씨와의 호흡은 좋다. 항상 노력하는 사이라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 이동욱 씨가 키가 너무 커서 고개도 아팠다"고 웃었다.

조승우와 이동욱 뿐만 아니라 원진아, 문소리, 이규형, 유재명 등이 출연한다.

조승우, 이규형, 유재명은 '비밀의 숲'에 이어 이수연 작가의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게 됐다.

홍중찬과 센터장 역할을 맡은 유재명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이수연 작가님의 대본 속 인물들은 외로워 보이고 결핍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 결핍에 이유가 있고 절실함이 있다"며 "그 결핍들이 충돌하는데,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할까 봐 생기는 부담도 있다"고 털어놨다.

유재명은 예진우와 구승효의 대립에 대해 "두 사람이서 거칠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며 "젊은이들이 전 세대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진보적인 것들을 만들어갈지를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연출은 '명불허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디어 마이 프렌즈' 홍중찬 PD가 맡았다.

홍 PD는 "대본 자체가 주는 구성과 출연하는 배우들이 우리 드라마의 핵심이다"며 다른 의학드라마와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매주 월·화요일 밤 11시. /연합뉴스

“원작에 대한 부담? 더 신나게 연기 했어요”

디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화 '인랑' 주연 강동원

“원작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사실 그런 부담은 연기자로서 좋은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더 신나기도 해요.”

배우 강동원이 주연을 맡은 영화 '인랑'은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동명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원작은 '공각기동대'와 함께 오시이 마모루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유독 마니아 팬이 많은 걸작이기도 하다.

마니아층 지지를 받는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작업은 득보다 실이 많기 마련이다. 원작에 충실하면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재해석이 과하면 원작을 망쳤다는 비난이 쏟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연출을 맡은 감독이나 주연 배우라면 자연히 부담을 느낄 하지만 24일 팔판동 한 카페에서 만난 강동원은 “그런 부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부담스럽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담은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김지운 감독은 '인랑'을 실사화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주인공 '임중경' 역으로 강동원을 점찍고 2012년 여름, 그에게 출연을 제안했다고 한다.

“원작 애니메이션을 대학 때 보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시 봤죠. 그리고 든 생각이 '이걸 실사화한다고? 가능한가'였어요. 감독님이 만수무침 있으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죠.”

한국에서 일본 SF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자체가 큰 도전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강화복 같은 코스를 입고 나오는 한국 영화가 없었는데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실사화한다고 했을 때 이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인랑'의 하이라이트는 강화복을 입은 강동원이 지하수로서 공안부 요원과 벌이는 총격전 시퀀스다. 그가 착용한 강화복은 아이언맨 슈트를 제작한 미국 회사 제품이라고 한다.

강동원은 이 장면을 위해 30kg이 넘는 강화복을 촬영 기간 내내 옆에 끼고 살았다. 이는 육군 보병의 완전군장과 거의 같은 무게다.

“움직이기도 힘든 데 감독님이 강화복 입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강화복 액션을 거의 한 달 동안 찍었는데 저는 대역을 쓸 줄 알았죠. 한 달 동안 놀겠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강동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의 미남 배우로 통한다. 그래서 그와의 인터뷰는 항상 여자친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여자친구는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다”는 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강동원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끝까지 사랑(재) 4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재)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00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헬로키즈 동물교실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비밀과 거짓말(재)	00 kbc자연재해예방특집 자연재해, 이렇게 대비합시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0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행건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력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슬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미래를 위한 선택, 축산 혁명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페기키 1~2부
12	3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55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전북짬과 땅콩소스 비빔면)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 그랜드캐니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로로 뽀로로
06:20 세계테마기행(재) (취계! 덴마크, 행복을 드릴까요?)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엔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초이슈
08:30 미니특강대 X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노마드 아시아 3부 시간이 빛은 풍경 키르기스스탄)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여름이 어때서 3부)
09:00 엄마 까투리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숲 속의 인간, 오랑우탄)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말랄라 뿌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5일 (음 6월 13일 戊午)

<p>36년생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48년생 확대할 필요는 없으니라. 60년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 72년생 박차를 가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4년생 마치고 나서야 근본적인 연유를 깨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3, 18</p>	<p>42년생 핵심을 벗어나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54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66년생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함이 최상이다. 78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90년생 그간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71, 80</p>
<p>37년생 빨리 조처하는 것이 좋다. 49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다. 61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 해야겠다. 73년생 먼 곳에서 찾은 필요 없으니 크게 뜨고 살펴보라. 85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7, 90</p>	<p>43년생 힘들더라도 중도에서 그만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5년생 자발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67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79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91년생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행운의 숫자 : 83, 71</p>
<p>38년생 구제화 되면서 가능성을 높게 되느니라. 50년생 다시 보면 달리 보일 것이다. 62년생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74년생 예상치 못한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느니라. 86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15, 93</p>	<p>44년생 뜻밖의 변수가 보인다. 56년생 진용을 정비해야 할 성국에 놓여 있다. 68년생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갖는다. 80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92년생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재물이 들어오겠다. 행운의 숫자 : 62, 01</p>
<p>39년생 일장일단이 있다. 51년생 지나간 일을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63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87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48, 47</p>	<p>45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 하자. 57년생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행동하라. 69년생 발상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절실하다. 81년생 지금 내색할 필요는 없다. 93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관계이다. 행운의 숫자 : 82, 68</p>
<p>40년생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52년생 빨리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다. 64년생 호적수와의 만남이 불가피하다. 76년생 탄력이 없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88년생 작용력의 여파를 간과한다면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21, 98</p>	<p>34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태산 같이 쌓여있다. 46년생 두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련 될 수밖에 없다. 58년생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하다. 70년생 기존에 해 왔던 바대로 정진하면 희망이 보인다. 82년생 면밀하게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02, 19</p>
<p>41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53년생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무방하리라. 65년생 발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었다. 77년생 처음에는 거칠더라도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다. 89년생 안정이 곧 성공의 초석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80, 35</p>	<p>35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롭음이 보인다. 47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개털에 베풀기듯 하겠다. 71년생 다수자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83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38, 5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